

“통일 대장정 불교가 불자가 앞서 이끌자”

10월 3일 우리의 개천절 날 독일은 통일 1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통일 후유증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지만, 우리에게만은 부러운 장면임에 틀림없다.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었던 우리도 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 관계를 점검하고, 이후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교와 통일을 일과 삼으로 엮어가는 여섯 분에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통일인가 △현 통일 논의의 문제점 △통일을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통일 후유증' △불교계 대북 불교교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문가 6인의 답변을 시사좌담으로 엮어 달라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일을 위해 나는,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본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일전략의 개발이다. 분단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통일이란 '방안'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혁범 :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분단 냉전적 기득권을 위해서 통일을 늦추고 통일 비용을 걱정하고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는 차원에서 전개되거나 반대로 △조국은 하나! 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원래 한민족은 같이 살아야 한 다던가, 통일해서 잘사는 강대국을 만들어보자는 식의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위험하다. 어떤 통일

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족문제가 다른 것을 지배하거나 압도하면 안 된다.

획일주의의 사고 경계

▲통일을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 계신다면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지현 : 불교가 통일을 위해 할 일의 첫째는, 남한 내에 통일에 관한 여론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중심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적 차원의 지속적인 북한불교도 지원, 셋째, 북한불교도와의 직접적인 교류와 접촉을 통해 불자로서의 공감대

를 바로 보도록(正見) 인도할 것이다. 극단적 주장인 승공불일론·반공불일론 등을 버리고 남북 양 국민과 체제에 다 유리한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중도적 통일론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운동·인권운동·고난에 처한 민중구제운동을 펼칠 것이다.

법타 : 첫째, 통일방안에 대한 중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전쟁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교육문화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체제 내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포교적인 방법보다 문화·예술의 측면을 통한 세밀한 교

는 것이다. 어떤 공동의 노력과 운동에 있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각기 중요하다는 불교적 자각이야말로 획일주의적 집단주의에 매몰되기 쉬운 통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유환 :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남북간·남남간 갈등을 해소하며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통일성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특히 민족 전통 종교인 불교계는 민족통일성 회복과 민족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중심 사상으로서 불교의 중화(中和)사상과 화

전문가 지상좌담 '불교와 통일'

- 법타 스님 / 평불협 공동회장
- 지현 정사 /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 법륜 스님 / 좋은벗을 이사장
- 박상규 의원 / 민주당(국방위원회)
- 권혁범 교수 /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이해하고 인정하기

▲통일은 남북간의 외형적 통합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할 텐데요. 통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법타 :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세계와 인류의 평화, 남북한 주민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 한반도의 환경보전,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을 통한 인도주의의 실현 등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불교를 민족화하려는 데 있지 않다. 남북의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 교류를 불교적으로 심화시켜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륜 :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되기를 원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나로 묶으면 그것은 속박이 되어 결국에는 다시 분열하고 만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 즉 그들의 고통·아픔·눈물,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두려움·비참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권혁범 : 통일을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묶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최종 목표라면 통일을 위해 다른 보편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고 또 이제는 극복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국가(Nation-State)를 오히려 확대, 강화하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단이

근대국제정치의 모순을 포함한 것이라면,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의 주민들은 세계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계기를 보여줘야 한다.

지현 : 통일은 남북 북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껍질을 탈각하고 다 시금 한민족의 정체성을 창출해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가 당국자간 교류로 급속히 추진되기보다는 민간 교류를 병행하며 이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박상규 : 남북통일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신뢰와 화해, 교류와 협력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군축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루어지면, 군사적 대결에 집중되었던 한민족의 역량을 경제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민족 내부의 단결된 힘으로 삶의 질 향상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동포 의견 결집

▲현 통일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통일에 대한 말들은 무성합니다만,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법륜 : 통일논의에 북한정부·남한정부·남한주민의 의견은 그나마 반영되고 있지만, 북한의 2000만 동포들의 이해와 견해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민족의 구성원 중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이해와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와 긴급한 과제가 있다. 정치·군사적 과제는 중요한 과제이고, 북한주민의 기아·질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은 긴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 남북 양 정부간에 정치적·군사적 화해만 논의되고 있지, 북한민중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박상규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 정부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비난하고 있다. 당리당락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넓고 큰 시각으로 통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지현 :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남한 내의 상호주의 여론인데, 놀부와 흥부의 경우처럼 남북 사이는 상호주의가 될 수 없다.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에서는 너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나기만 하고 성과는 없다고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도록 통일의 유속(流速)을 만들어놓는 다음에 그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고유환 :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새 통일방안을 낼 경우,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이 중추를 이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국민적 합의와 과정이 필수적이다.



법타 스님

북한 지원·교류 문화포교의 방향 중단적 합의 필요



법륜 스님

통일 멀지 않았다 평화·복지·화합 불교의 역할 크다



지현 정사

정부-민간 교류 이념적 차이 극복 민족 정체성 찾자



박상규 의원

남북한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등 점진적 통일 추진

도 좋은가? 이런 식으로는 북한의 공감대는 리조트 단지가 되고, 북한의 국도는 '가든'과 '파크'로 뒤덮이며, 북한의 주민은 2류 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획일주의적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다른 집단 및 개인을 이해관계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다중적 정체성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 통일 논의는 '하나가 되자'는 파시즘적 구호보다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 주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성, 노동자, 청소년 및 노인의 입장, 환경문제 등이 민족문제와 유

확보와 복이 원하는 사찰 문화재 복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법륜 : 통일은 바로 코 앞에 닥친 일이다.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절이 한 두개 더 지어지고 신자가 몇 만명 더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국가의 과업을 원만히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불교의 장래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한다.

법륜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 늘의 한반도 상황에 계신다면, 적어도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사상과 이념의 편견을 버리고 민족의 현실

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동포 애적인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와 교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특히 북한체제는 교류협력분야에 있어 종교를 맨 나중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통일문제에 가지는 보편적 의의나 문제점을 세계의 종교지도자에게 환기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혁범 :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다. 그것은 만물과 모든 중생을 관동하는 진리다. 따라서 불교의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편적 진리에서 나오는 가치원칙을 유지하

는 것이다. 어떤 공동의 노력과 운동에 있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각기 중요하다는 불교적 자각이야말로 획일주의적 집단주의에 매몰되기 쉬운 통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유환 :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남북간·남남간 갈등을 해소하며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통일성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특히 민족 전통 종교인 불교계는 민족통일성 회복과 민족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중심 사상으로서 불교의 중화(中和)사상과 화

▲'통일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일은 남북 북 모두가 버리기'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상규 : 남북 북의 통일에는 경제적 부담과 이념, 가치관의 혼란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은 독일처럼 급격히 어느 일방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제도와 이념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한민족의 미래

정(和靜)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시는법 연습

E-mail: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2-13 성지B/D 503호 TEL. 733-4277(FAX) 733-4279

묘긋과 진오긋긋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신국판/값 7,500원

너희가 편하지

저자와의 만남 031-921-5445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민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살아 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신음받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정신이 이루어져 전생에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묘긋과 진오긋긋에 특히 감화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삼아야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편하고 행복해진다고.....

최근 정 회장(정주영 전 명예 회장)이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청운동 집을 떠나 가회동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너져서 치유 능력이 격렬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자 승무원 세 사람이 무구리를 하러 왔다. 7월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났던 것이니 걱정을 그만 두고 시집가는 게 좋겠다는 정씨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았고 두 사람은 밤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범의 「무녀벌곡」 중에서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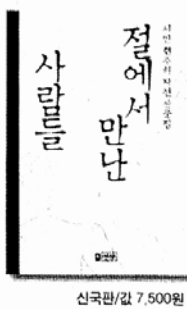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법흥 큰스님.....

명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지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워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운 스님..... 절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맛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허일지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혼란하게, 때로는 몽롱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신국판/값 7,500원